

발행인: 김홍국 편집: 이재하·김태은

(우 137-044)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6호 통권36호

우모상태는 수익과 직결된다.

브로일러의 우모발생 상태는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 우모가 체표면에 적당히 나 있으면 타박상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식우성의 결과나 부러진 우모가 있으면 도계의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도계장에서도 작업 효율이 저하되므로 우모상태가 나쁜 브로일러를 기피하게 된다.

• 유전력에 따라 좌우된다.

브로일러 종계의 품종(또는 계통)간에 우모발생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떤 계통의 브로일러는 항상 우수한 질의 우모를 가지고 있다. 우모의 길이로 병아리의 암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우모 발생 지연인자도 바로 이런 유전성의 일부라 하겠다. 대부분의 육종사업은 우모를 개량하는 것보다는 체중이 큰 계통의 브로일러를 개발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 영양도 중요한 요인이다.

영양소 중에는 우모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다. 우선 사료 내에는 적당 수준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미량 광물질로서는 아연 그리고 비타민에서는 나이아신과 엽산 등이 우모 발생에 관련한 특별히 요구된다. 에너지 또한 에너지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와 단백질과의 균형과 같이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을 이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면 우모발생 상태는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브로일러는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면 사료 섭취하는 시간은 단축되나 식우성과 같은 악습이 발생하면 오래가게 된다. 더우기 단백질비가 맞지 않는 고에너지 사료로 사용하면 우모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출하되므로 더욱 우모발생이 문제가 된다. 벌거숭이 브로일러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우모의 발생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은 못된다.

• 합리적 관리는 필수적이다.

우모발생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관리면에

서 더욱 많다고 하겠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관리상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사내에는 브로일러의 피부가 손상되기 쉬운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한다.
- ② 빛의 광도가 증가되면 우모 발생이 불량해진다. 24시간 점등보다는 14시간 정도가 바람직하며 직사광성도 해롭다.
- ③ 밀사는 브로일러가 타고난 성질인 식우성의 악습을 유발한다.
- ④ 환기와 온도는 우모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육추시의 높은 온도는 우모발생을 지연시키며 육성기의 높은 온도는 털을 뽑아먹는 악습을 일으키게 한다. 반면, 낮은 온도는 병아리가 한 곳에 밀집하게 되어 바닥에 습기가 많아지고 따라서 우모 발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암모니아 개스가 발생한다.
- ⑤ 사료와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질병은 우모발생의 적이다.

우모상태가 좋은 닭은 건강한 닭이다. 질병은 우모발생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우모가 가장 활발히 자라는 3-4주령때의 질병이나 기생충 등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막심한 것이다. 이러한 질병이나 기생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항상 세척하고 가능한한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계사 입구에는 소독판을 설치해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도 통제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모의 상태는 바로 현금과도 같은 의미이다. 좋은 우모 발생 능력을 지닌 계통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모 발생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균형있게 배합한 사료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좋은 사육 환경에서 합리적 관리를 할 때 좋은 우모를 가진 육계를 출하 할 수 있을 것이다.